

전남대 총장선거 전면수사

檢, 당선자 교수실 압수수색

검찰이 전남대 총장선거와 관련 일부 부정이 개입했다는 단서를 잡고 전남대 교수 연구실과 정보전산원 등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관련기사 6면>

광주지검 공안부(송규종 부장검사)는 3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본교와 동구 학동 의대, 여수 캠퍼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지난 5월23일 전남대 총장선거에서 1순위 후보로 선출된 박창수 의대 교수와 박 교수를 도운 측근 교수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일단 압수수색 후 협의가 드러난 교수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수사는 전남대 총장 선거를 위탁관리한 복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 없이 한 대학 교수의 제보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남대 총장선거 과정에서 박 교수가 자신의 인척 등을 동원해 교수들에게 식사·골프 접대를 하는 등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일부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는 ▲대학의 장 후보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이익이나 작위 약속 등의 행위 ▲선거인 가택 방문이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 교수의 휴대폰을 비롯해, 박 교수를 포함한 15명의 교수가 선거운동기간 주고받은 이메일의 복원에 나서 전체 후보자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3일 오후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정보전산원을 압수수색해 전남대 총장 선거운동기간 후보자와 교수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복원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도 크다는 분석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전남대 19대 총장 선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과정에서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총장 후보자 순위와 관계없이 당선자가 결정되거나

재선거를 실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행하고 있어, 직선제가 아닌 다른 선출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호남은 대선가도 1번지

여야 주자들 앞다퉀 광주·전남 순례 “민주주의 성지 호남민심 얻어야 승리”

여야 대권주자 대부분이 광주·전남에서 출사표를 던지거나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이 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발전시켰다는 민주주의 정통성과 역사상·상징성을 모두 갖고 있는데다 정치의식이 어느 지역보다 높은 호남 민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련기사 4·5면>

‘진노’(진 노무현)이면서 영남의 대표 주자인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대선 출마 선언 장소를 해남 땅끝 마을로 선정했다. 김 지사는 8일 오전 광주 망월동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뒤 곧장 해남으로 이동해 땅끝마을에서 출마선언을 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도 지난달 17일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출마선언을 한 뒤 20일부터 시작한 ‘소통과 동행’이라는 주제의 첫 지역 투어로 광주를 찾았다. 문 고문은 광주에서 호남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참여정부가 그랬듯 세 번째 민주개혁정부가 들어서는데도 광주·전남이 중추역할을 할 것”이라고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14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도 서울 일정을 마무리 한 뒤 3일째인 17일 광주를 찾아 첫 민생 행보를 시작했다. 손 고문은 국립 5·18 묘역을 찾은 자리에서 ‘광주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세균 상임고문도 지난달 26일 출마를 선언한 뒤 3일 광주로 내려와 광주·전남을 돌며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밖에 박영선 의원과 조경태 의원, 김영환 의원 등도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또는 선언 전에 각각 광주와 전남을 찾아 민심을 듣는 등 호남이 민주당 텃밭이라는 점 때문인지 호남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였다.

야당 대선주자 뿐 아니라 여권의 대선 주자들도 첫 대권 행보로 광주를 택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5월11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곧바로 광주에서부터 전국 민생투어에 나섰다.

임태희 전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대선 출마 선언 뒤 광주에서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고, 이재오 의원은 대권 도전을 선언한 뒤 지난 5월17일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50일 간 일정의 ‘국민 속으로 민심 대장정’을 시작하기도 했다. 김문수 경기 지사는 5월18일 광주를 찾아 5·18 광주민중항쟁 3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뒤 고흥군 소록도 한센인 집단요양시설을 방문해 1박2일 동안 봉사활동을 벌였다.

여당 대선 주자들이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를 선택한 것은 새누리당의 불모지인 호남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연필기자 cki@kwangju.co.kr



정몽준

<5월2일 예비후보 등록후 첫 광주방문>

“5·18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없었다”



임태희

<5월15일 24~25일, 6월24일 광주·목포 방문>

“역차별 희생 아닌 지역 경제발전을”



이재오

<5월17일 광주서>

“민심대장정” 시작

김문수

<6월11일 대선출마 후 첫 광주 방문>

“성공한 대통령돼서 광주정신 받들겠다”



손학규

<6월18일 대선출마 선언 후 첫 지역투어 광주 방문>

“성공한 대통령돼서 광주정신 받들겠다”



문재인

<6월20일 대선출마 선언 후 첫 지역투어 광주 방문>

“세 번째 민주정부도 광주가 만든다”



정세균

<7월3일 대선출마 후 첫 광주 방문>

“DJ 정신 창조적으로 계승 하겠다”



조경태

<6월29일 대선출마 후 첫 광주 방문>

“광주정신 창조적으로 계승 하겠다”

김두관

<7월8일 해남 땅끝서 대선 출마선언>

“광주정신 창조적으로 계승 하겠다”

이상득 피의자 조사... 금품수수 일부 시인 정두언 내일 소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윤식 부장검사)은 3일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높게 조사했다. <관련기사 5면>

검찰은 또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을 5일 오전 10시 대검 중수부 조사

실로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정 의원의 신분을 참고인상 혐의자라고 전했다.

수사팀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17대 대선 직전인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총 6억원 안팎을 수수했는지와 대가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임 회장을 만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순한 후원금 명목이었다며 대가성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이날 밤늦게까지 이 전 의원을 조사하고 일단 돌려보낸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수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한-EU FTA 관세인하가액 판매
062)226-0001
Mercedes-Benz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광주에서 15~20분대의 우수한 접근성과
밀리지 않는 정확한 티오프시간으로 고객님의 시간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혜택이 좋은 회원권 보다는 대우받는 회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해피니스CC 회원모집

- 클럽위치 :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219번지
- 코스규모 :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VIP 정회원(3차) - 모집인원 : 1명	VIP 정회원(2차) - 모집인원 : 9명
▶ 입회금액 : 5억	▶ 입회금액 : 3억 3,000만원
▶ 회원특전	▶ 회원특전
- 정회원 2인 : 그린피 면제(동반3인 상시 그린피 50%할인, 연20회 그린피 면제, 단 1일 1회 18홀 기준), 월 8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 혜택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동반3인 상시 그린피 50%할인, 연20회 그린피 면제, 단 1일 1회 18홀 기준), 월 8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 혜택
- 무기명카드 2매 발급 : 그린피 면제(연 50회 사용, 1일 1회)	- 지정회원 1인 : 준회원대우(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연 365일 사용, 1일 1회)
하트 정회원 - 모집인원 : 5명	휴먼 정회원 - 모집인원 : 10명
▶ 입회금액 : 2억원	▶ 입회금액 : 1억 5,000만원
▶ 회원특전	▶ 회원특전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 혜택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 혜택
- 지정회원 1인 : 그린피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지정회원 1인 : 준회원대우(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연 120회 사용, 1일 1회)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연 90회 사용, 1일 1회)
해피 정회원 - 모집인원 : 30명	주중 / 평일 회원 - 모집인원 : 47명
▶ 입회금액 : 1억 1,000만원	▶ 입회금액 : 3,300만원(선착순 30명에 한하여 300만원 할인)
▶ 회원특전	▶ 회원특전 : 평일회원 1인 : 그린피 70%선 할인
- 공통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 혜택	
- 선택 : C형, D형 중 선택(1)	
C형 무기명 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연 45회 사용, 1일 1회)	
D형 지정회원 1인 : 준회원대우(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계약시 : 정회원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완납시 : 모든 특전
* VP·하트·휴먼·해피 정회원은 광주은행 담보대출 70%선(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 공개모집 인원 초과시 추경에 의하여 회원선정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 납입후 1개월내 잔금완납

가입문의 Tel 061)330-5001~4 / Fax 061)330-5009

happiness 해피니스CC www.happinesscc.com